

강진군, '누구라도 반값+강진여행' 경제 활성화 기대

여행비용 50% 20만원 상품권 환급 기준 방문 관광객 재신청 가능 '착어플' 당일 지급 즉시 소비 로컬푸드·초록민음 소핑몰 사용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진을 방문할 경우 반값 요금 혜택이 제공된다. 강진군은 '누구라도 반값+강진여행' 운영을 통해 여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지역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누구라도 반값+강진여행'은 강진에서 반값 여행 후,

소비한 여행 비용의 50%를 최대 20만원까지 모바일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반값 관광으로 강진을 방문했던 관광객들도 재신청이 가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착(Chak)어플을 통해 당일 지급이되며 즉시 소비가 가능하다.

안전하고 우수한 강진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강진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한우, 쌀, 쌀귀리, 묵은지, 막걸리, 토마토뿐만 아니라 장미, 수국 등의 화훼도 제공되고 있다. 현재 393농가

가 로컬푸드 출하회에 등록돼 있으며 711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군에서 직접 운영 중인 '초록민음강진' 소핑몰은 108개의 관내 농수축산물 업체가 입점해 농축산물, 가공류 등 398개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중이다. 현재 '초록민음강진' 소핑몰에서는 중소기업 유통센터 사업비 지원으로 소상공인 정기구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기구독 사업은 소비자가 신선한 농특산물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소비자는 매달 강진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 강진여행을 통해 관광객은 물론 지역 내 소비자에도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들의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정기구독 상품도 소비자가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라도 반값+강진여행'은 기존의 가족단위에서 1인 여행자, 친구, 연인, 지인, 동호회 등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강진군 외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여행당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경영실습 임대농장 모집 청년 농업인 3명 선발

신안군은 오는 8월 말까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망고 1명, 딸기 2명 등 총 3명이다.

선정된 청년 농업인은 영농 운영과 품목별 재배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임차받아 현장 체험을 통해 기술을 전수받고, 수료 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게 될 임대농장 규모는 망고 1개소 1624㎡, 딸기 2개소 3230㎡ 등 총 3개소 4850㎡ 규모다.

임차 기간은 3년 내로 연간 임대료 30만원 내외의 임차료를 낸다.

신안군은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8명의 청년 농업인을 배출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망고, 바나나, 딸기, 커피 등의 경영실습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신안군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수출산업 육성 목표

강진군은 수출업체 및 농가에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등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수출 물류비 지원이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2023년으로 폐지됨에 따라 신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첫 번째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은 총 사업비 3억5400만원을 확보해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 용기, 박스 지원 등과 수출 때 필수조건인 각종 보험료, 수입·통관 수수료, 컨테이너 상하차 비용 지원 등으로 사업신청시 1개 사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신규 지원사업 두 번째로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6800만원이며 수출물량(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의 1kg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신규 지원사업은 읍·면사무소에 지침을 시달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수출업체 및 농가에서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여름방학 맞이 체험 교실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자연사박물관이 여름방학 성수기를 맞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2024 신나는 여름방학 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체험교실은 펠트공예 체험 등 2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펠트지를 활용한 '알록달록 꼬마 공룡 망토 만들기' 체험과 바다가에 버려진 폐유리 등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바다 유리 키링 만들기' 체험을 마련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교실은 26일부터 8월18일까지 매주 금·일요일(오후 1시30분~오후 2시30분·오후 3시30분) 목포자연사박물관 디스커버리존에서 운영된다. 신청 방법은 선착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체험료는 3000원과 6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자연사박물관 누리집(<http://museum.mokp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목포자연사박물관(061-270-4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민들이 건강증진교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8~16일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증진 교실 성료

무안군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90명 중 32명에게 통합건강진사업과 연계한 건강증진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4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약물을 복용한 질환자(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질환자)를 제외했지만 올해는 혈압·당뇨병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자 20명을 포함하

여 총 9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한 건강증진교실은 유산소 및 근력강화운동, 흡연 예방 및 절주교육, 고혈압 바로 알기 건강교육,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및 영양실습을 제공하여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 대상자에게 24주간 식습관과 체

중, 걸음 수 등을 꾸준히 기록 관리하고 참여자의 앱과 스마트워치를 통해 생활습관 교정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대면 프로그램을 통한 더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김성철 보건소장은 "모바일 기술과 건강관리의 융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군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인 기자

해남군,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측량확인 현장사무소 운영

해남읍 안동 등 4개지구

해남군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4개 지구 1938필지에 대한 측량결과 열람 및 경계결정 협의를 위한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산이 초송1·2지구, 해남 안동지구는 지난 8~19일 운영을 마쳤으며 오는 30일까지는 화원 청용지구에 대한 현장사무소를 화원면 농민상담소에 설치 운영한다.

현장사무소에는 사업지구별 담당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상주해 드론을 활용한 정

사영상과 측량자료를 중첩시킨 자료를 통한 자세한 설명으로 측량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계협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보내 의견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올해말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경우 토지소유자 입회하여 경계점을 설치하는 등 편의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지적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측량결과 설명 및 경계협의를 통한 소통행정을 이루고, 경계분쟁 및 측량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1개지구 1만5869필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으로 해남 안동지구, 산이 초송1·2지구, 화원 청용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마케팅 지원 강진군, 내달 5일까지 모집

강진군이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사업은 맞춤형 영상을 제작해 사업장과 주력 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당 사업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군에서 일괄 제작해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신청 필수 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액 증명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동의서다. 이와 함께 가산점 항목(강진사랑상품권 또는 먹거리 가맹점, 강진군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강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해 8월5일까지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이 동영상 제작을 진행하며 온라인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기를 갖추는 것을 시작으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급변하는 상황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매출 증가와 노련한 소상공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소상공인 동영상 제작 등 마케팅 지원 사업 담당자(061-430-3084)에게 문의하면 된다.

강진=김윤복 기자